

흰그림자

黃昏이 지터지는 길모퉁에서
하루종일 시드른 귀를 가만이 기우리면
땅검의 옮겨지는 발자취소리,

발자취소리를 들을수있도록
나는충명했든가요.

이제 어리석게도 모든것을 깨다른다음
오래 마음 깊은속에
괴로워하든수많은나를
하나, 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면
거리모퉁이 어둠속으로
소리없이사라지는흰그림자,

흰그림자들
연연히 사랑하든 흰그림자들,

내모든것을 돌려보낸뒤
허전히 뒷골목을 돌아
黃昏처럼 물드는 내방으로 돌아오면

信念이 깊은 으젓한 洋처럼
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뜻자.

四、 十四、

흰 그림자

황혼이 짙어지는 길모퉁에서
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
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소리

발자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
나는 충명했던가요.

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
오래 마음 깊은 속에
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
하나, 둘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면
거리모퉁이 어둠 속으로
소리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

흰 그림자들
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

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
허전히 뒷골목을 돌아
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

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
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.

4. 14.